

메디톡스, 국내기업 최초 '특신 할랄인증 공장' 짓는다

두바이 특신공장 건립 MOU 체결
전 세계 무슬림·중동시장 등 공략
한국-UAE간 대표 경제 협력 사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리코스 마리나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왼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 두바이사이언스파크 마르완 압둘아지즈 자나히 대표가 특신 완제품 공장 건립 MOU를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메디톡스가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참한 성과로 두바이에 특신 완제품 공장을 건립한다.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특신 생산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톡스는 향후 할랄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다.

메디톡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리코스 마리나 호텔에서 진행된 한국-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두바이 국영 기업 테콤 그룹이 소유한 두바이사이언스파크와 특신 완제품 공장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UAE 순방 경제사절단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메디톡스는 두바이 현지에 자체 개발한 세계 최초·유일 비동물성 액상 특신 제제 'MT10109L'

기반의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되며, 할랄(HALAL) 인증을 통해 전 세계 무슬림 시장과 중동 및 유럽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UAE는 포스트오일 시대를 대비한 중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바이

오 의약품 생산공장 유치에 성공하게 됐으며, 한국-UAE간 대표 경제 협력 사례도 만들게 됐다.

메디톡스는 급성장하는 글로벌 특신 시장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여러 해외 기업들과 현지 생산시설 건립을 오랜 기간 검토해왔으며, 중동 및 유럽 진출에 용이하고 우수한 제반 환경을 갖춘 두바이를 최종 건립지로 정했다.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 도약을 위해 현지 생산시설 확보는 필수"라며 "할랄 인증을 받은 두바이의 특신 완제품 공장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R&D) 역량으로 개발한 메디톡스의 특신 제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참하여 모범적 협력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익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두바이사이언스파크 마르완 압둘아지즈 자나히 대표는 "두바이사이언스파크는 기업들의 성공적 비즈니스 영위에 필요한, 훌륭한 에코시스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메디톡스가 우리의 과학 중심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합류한 것을 환영하며, 이 지역에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메디톡스가 두바이에 특신 완제품 생산시설을 건립하게 되면 해외 현지에서 특신 생산시설을 보유한 최초의 국내 기업이 된다. 메디톡스는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실행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으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LG생활건강, 경력보유여성 등 '라방 인재' 육성

'내추럴 뷰티Live 크리에이터' 운영
2018년부터 130명 수강생 배출



LG생활건강 내추럴 뷰티라이브 크리에이터 5기 발대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패션뷰티 업계의 대세 유통채널이 된 '라이브커머스' 인재를 육성하고, 경력보유여성 등 우리 사회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위한 ESG 활동인 '내추럴 뷰티Live 크리에이터'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2018년부터 경력보유여성, 2030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내추럴 뷰티 크리에이터'(이하 내뷰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130여명의 수강생들이 뷰티 크리에이터로 교육을 받았고, 이중 유튜브 구독자 수 1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도 여러 명이다. 내뷰크는 이들의 사회 진출과 취업의 발판을 제공하며 LG생활건강의 대표적인 여성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특히 올해는 대세 유통 채널로 주목받으며 한 해만 9조 원 대 시장 규모

로 추산되는 라이브커머스 채널에 주목했다. 기존 뷰티 인플루언서 양성 교육 과정에 라이브커머스 교육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해 라이브(Live) 기능을 강화한 내뷰크 5기 과정을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LG생활건강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리조트 호텔에서 내뷰크

5기 참가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5기에는 경력단절전업주부, 취업준비생, 연극배우, 아나운서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총 244명이 지원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5명(여성 29명, 남성 6명)을 선발했다. 최종 경쟁률은 약 7대1을 나타냈다. /이세경 기자

메드팩토 '백토서팁', FDA 패스트트랙 지정

신약개발 과정 신속 진행

메드팩토가 골육종 환자 대상 백토서팁 단독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속 심사제도(패스트 트랙) 개발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중증질환 치료제 등 중요 분야 신약을 환자에게 조기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FDA가 시행하는 신약개발 촉진 절차 중 하나다. 해당되는 의약품은 ▲기존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약 ▲기존 치료법이 있을 경우, 기존 치료법들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입증하는 의약품 등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신약은 개발 각 단

계마다 FDA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DA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약개발 과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신속히 진행된다. 또 '롤링 리뷰(시판허가 신청 시 자료가 구비되는 대로 순차적 제출·검토)' 혜택이 부여되며, FDA와 '우선 심사(시판허가 신청 시 검토 기간을 6개월로 단축)' 협의를 할 수 있다.

메드팩토는 백토서팁 개발 과정에서 FDA 관계자들과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골육종치료제로서의 허가취득과 발매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CMG제약,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 진출

'아이앤지메딕스' 인수

CMG제약이 동물영양제 전문기업 '아이앤지메딕스'를 인수하고 반려동물 영양제 시장에 진출한다.

CMG제약은 지난 16일 아이앤지메딕스의 지분을 100%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아이앤지메딕스는 반려동물용 영양제를 연구·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반려동물이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정제, 스틱형 파우더, 소프트 츄어블 등 다양한 제형 기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앤지메딕스는 반려동물용 영양제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 인증을 획득하는 등 높은 수준의 위생 시설을 갖췄다. 또

생산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적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2021년 업계 최초로 선정돼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우수한 연구개발(R&D) 기술력, 생산능력, 마케팅 노하우로 자체 브랜드 반려동물용 영양제를 개발, 생산하고 있으며,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 주문자 개발 생산방식(ODM), 제조자 브랜드 개발 생산(OBM)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CMG제약은 보유 중인 기술력과 유통망에 아이앤지메딕스의 반려동물용 영양제 노하우를 접목한다. 아이앤지메딕스가 기존 보유한 오프라인 채널에 CMG제약이 보유한 온라인 채널을 결합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

오늘부터 2023명 무료음료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날을 맞아 18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까지 총 7일간 매일 2023명에게 무료 음료권을 증정하는 '사이렌 오더 럭키 래빗 이벤트'를 진행한다.

스타벅스는 행사 기간 중 회원 계정에 등록된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 사이렌 오더로 매장에서 파트너가 제조하는 음료를 주문하면 영수증 당 럭키 래빗 이벤트 참여 기회 1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하는 모든 고객에게 새해 응원의 메시지가 노출되고 행사 기간 중 1년 무료 음료권 23명, 1달 무료 음료권 100명, 1주 무료 음료권 200명 2023명을 매일 선정해 총 1만4161명에게 무료 음료권을 증정한다. /이세경 기자

삼성서울병원, 美 DHI '세계 최고 점수'

(디지털헬스지표)

'디지털 전환 앞장' 평가

삼성서울병원이 전 세계 병원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세계 최대 의료정보 학회인 미국 의료정보경영학회(HIMS)가 진행한 '디지털헬스지표(DHI)' 조사에서 400점 만점에 365점을 획득,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디지털헬스지표 조사는 ▲지배구조 및 인력 ▲상호운영성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 ▲예측분석 등 4개 영역에서 병원의 디지털 전환 정도를 묻는다.

삼성서울병원은 모든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디지털 전환 성적을 달성했다. 상호운영성과 예측 분석, 지배구조 및 인력 3개 부문에 각각 99%,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에서 98%를 달성했다.

4차 산업 시대를 앞두고 삼성서울병원이 전 세계 어느 병원보다도 발 빠르게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고, 초격차를 확보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

정 받은 셈이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은 이미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이며 변화가 한창이다.

이번 DHI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DOCC(Data-based Operation & Communication Center)가 대표 사례다.

DOCC는 병실부터 수술실, 검사 장비는 물론 의료진까지 병원의 모든 가용 자원을 그대로 '디지털 가상병원'에 연동시킨 뒤 병원의 현재 상황을 대입해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가령 채혈 검사의 경우 가상 병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이를 미리 예측하고 해당 시간대 의료진을 추가 배치하는 등 혼잡도를 줄이도록 변화가 뒤따르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병원 현장 곳곳에서 이러한 디지털 가상병원 체계가 20여개 이상 가동되면서 진료와 운영의 효율을 도모,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병원 서비스를 구현해 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